

7/7(목) 느헤미야 묵상 27

느헤미야 13:15-2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시행한 네 번째 개혁의 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 계명을 다시금 준수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묵상한대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난 결과 발생한 일로 추정됩니다.

안식일의 제정

안식일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11절과 신명기 5:11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출 20:11절(“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합니다. 즉,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로서 주님은 이 날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둘째로, 신 5:15절(“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은 안식일의 근거로 창조가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즉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단지 우리가 일을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범함

느헤미야가 본국에 도착한 이후에 발견한 유다의 또다른 죄는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 일입니다(15-16절,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기서 ‘술틀을 밟다’는 것은 포도주 제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언약을 갱신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바르게 지키기로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느 10: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밭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맹세를 저버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책망대로 일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둘째로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떠나 버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10절하,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이 흩어지자 당연히 성전 제사는 침체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삶과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지 말라”

는 말씀은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마 18:7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나의 죄와 허물이 결국 다른 영혼들 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준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금 무너진 안식일 준수를 새롭게 제정하게 됩니다(렘 17:27,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느 13:18,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오늘날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같이 더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일만을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말 1: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우리에게 주일은 과연 어떤 날이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진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러시아의 공격이 멈추고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수많은 피난민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나라 안팎에서 선교하시는 전세계 선교사님들과 교회, 민간 단체들의 안전과 필요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교회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브랜포드 1 구역입니다.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I 국의 태일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